

그들에게 무슨 일이... 어느 일가족의 비극

두 딸 숨지고 엄마는 위독
담양 천변 차량에서 발견
투자 사기 당해 신변 비판한 듯
경찰, 극단 선택 가능성 등 수사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40대 여성이 2명의 자녀들과 차량 안에서 숨지거나 위독한 상태로 발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차량 내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다, 자녀들의 저항 흔적을 찾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차량 내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다, 자녀들의 저항 흔적을 찾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투자 사기 피해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관련 사건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천변에 세워진 SUV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자매 A(25)씨와 B(17)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녀들의 몸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 등을 발견했다.

이들 자매의 어머니 C(45)씨도 흉기에 찔린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경찰은 당시 차량의 외부인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숨진 피해 여성들의 저항 흔적도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투자 사기를 당한 데 비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C씨가 수억원의 돈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괴로워했다는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당일 오전 오전 9시 30분께 '모녀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토대로 소재 파악에 나섰다.
광주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C씨가 당일 새벽 자녀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담양쪽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 담양 경찰과 공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으로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그러나 발견 당시 이들의 외상-위치 등을 토대로 석연치 않은 점 등도 있어 차량 블랙박스 분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등을 의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제 인증샷은 필수...자연스러운 투표 문화 자리매김

커플 '처음 같이 투표한 날' 등 SNS 등에 다양한 인증샷 올려



9일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인증샷을 남긴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 (SNS 캡처사진)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9일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의 '인증샷'도 줄을 이었다. 투표소 앞에서는 인증샷을 찍는 유권자들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운 투표 문화로 자리잡았다.
손등에 빨간색 기표 도장을 남기는 가장 흔한 인증샷부터 지지 후보를 짐작할 수 있는 색깔, 명함 등에 기표 도장을 찍어 올리거나, 투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증샷 등도 눈길을 끌었다.
한 유권자는 새벽 계림 1동 제1투표소 앞 벽보와 함께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역시 투표는 이른 아침에 해야지 재밌"이라고 썼다.
상무 1동 제 1투표소를 찾아 투표한 뒤 손등에 인증 도장을 찍어 올린 한 유권자는 투표 종료 20여분을 남긴 오후 5시40여분께 "나의 권리 행사 완료! 투표 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대통령 이 누가 되든 뭐라고 하면 안됨"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투표 참여 사실을 알렸다.

코로나 9 사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비닐 장갑을 벗지 않고 장갑 위에 인증도장을 찍어 올리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았다.
투표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증 사진도 잇따랐다. 한 커플은 첨단 2동 제 10투표소를 찾아 투표한 뒤 함께 찍은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나란히 올리며 "처음 같이 투표한 날"이라는 글도 덧붙였다. 월곡 2동 제1투표소를 배경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인증샷에는 '엄마랑 손잡고 투표'라는 제목의 글이 붙어있었다. 생애 첫 투표

에 나선 18세 유권자들의 인증샷도 빠지지 않았다. 광주시 서구 금호 2동 제 1투표소에서 올린 인증샷에는 '만 18세 대선 투표'라는 글이 달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 ▲금지적,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 등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송영길 대표 망치 테러' 70대 유튜버 구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유튜버 표모(70)씨가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철민 영장 당직판사는 표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표씨는 이날 7일 낮 12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폴렉스 앞 광장에서 유세 중이던 송 대표의 옆머리에 망치를 여러 차례 내리쳐 출혈이 발생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특수상해)를 받는다.
'표샷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표씨

는 범행 당시 체포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 등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일각의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대해 "한미 간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표씨는 이에 반발해 송 대표와 민주당에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종전 선언 촉구 등의 요구사항을 전하는 영상을 다수 올렸다. 지난달 24일과 이달 5~7일은 송 대표를 따라다니며 유세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폭력·성희롱 경험 취업자 증가...실직 우려 ↑·건강상태 ↓

산업안전연구원 근로환경조사
언어·신체 폭력, 성희롱을 경험한 취업자가 3년 전보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20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진행한 제6차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근로환경조사는 산업재해 예방 정책 수립·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만 15세 이상 취업자 약 5만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된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취업자 비율은 지난 번(제5차) 조사 4.8%에서 이번 조사 5.4%로 증가했다.

신체폭력을 경험한 취업자는 0.2%에서 0.3%로, 성희롱을 경험한 취업자도 0.2%에서 0.4%로 늘었다.
동료의 도움·지지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9%에서 60%로, 상사의 도움·지지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에서 58%로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거리두기 문화로 소통이 적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0%에서 35%로 낮아졌고, 6개월 내 실직에 대한 우려는 10%에서 12%로 높아졌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취업자는 73%에서 69%로 줄었다.
/연합뉴스



투표 마치고 봄나들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투표를 마친 시민들이 담양 관방천에서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벽보 훼손·투표소 행패 등 선거사범 72명 단속

광주·전남 경찰
광주·전남 경찰이 20대 대선과 관련,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거나 투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선거사범 7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대선 투표 당일인 9일까지 선거사범 52명(43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 22명(21건),

선거 관계자 폭행 2건, 투표지 촬영 2건 등이다. 전남에서는 20명(33건)이 입건, 이 중 6명(4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입건자 중에는 현수막·벽보 훼손 사범(광주 19명·전남 5명)이 가장 많았다.
광주서부경찰은 9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표소가 왜 2

층에 있느냐'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경찰도 이날 오후 4시께 나주지역 한 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선거사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선거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이다.
북부경찰도 지난 2월 22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에 설치된 대선후보 현수막 3개를 훼손한 60대 남성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외벽에 붙어있던 허경영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